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제6대
김용웅 원장



오늘 충남발전연구원의 6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발전의 선도주자인 충남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신 충남발전연구원 이사장 이완구 지사님과 이사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충남발전연구원의 제 5대 원장으로서 도정의 혁신과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충남도민, 충남도의회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 및 지역사회 지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영광은 저 개인의 노력과 역량 보다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해 준 연구원 가족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3년간 충남발전연구원은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가장 보람 있는 연구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연구와 행정도시 건설, 장항산업단지 조기착공 및 국방대학교 논산 유치 등 국책사업유치 및 지원연구를 들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충남의 미래비전과 전략 연구, 각종 국가공모개발사업 및 국가예산확보 연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은 연구원 조직과 연구수행 역량을 키우는 데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연구전담인력과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되었고, 시도연구원 최초로 성과관리제, 임금 피크제 및 순환보직제 등 조직혁신도 단행했습니다. “공동학습과 협력연구 시스템”과 “성과 지향적 연구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연구수행 방식의 도입에도 힘써 왔으며, 사회적 학습의 선도 및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 수행 등 연구원의 사회적 기능 강화에도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연구원의 혁신 작업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세웠던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



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역발전연구의 환경과 수요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수행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충남 지역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지역연구 수요는 더욱 다변화되고 연구의 양도 급격히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인력과 예산의 확충 등 조직역량 강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원 조직이나 인력의 확대만으로 새로운 연구수요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역 내 전문 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조직과 연구수행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원 가족 여러분은 연구수행자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지식 네트워크 매니저로서의 역량도 함께 갖추는 데 힘써야 합니다. 증대되는 지역연구 수요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연구원의 지방행정지원 역할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수탁연구의 수행과 자문 등 컨설팅(consulting) 기능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 실무자들의 분석과 기획 역량을 높이고, 실용적인 시책을 지방행정 실무자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코칭(coaching)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이 앞으로 지역 싱크 탱크(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과제가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각종 조직에서 수많은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니 상호간 연결이나 조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의 승패는 지역단위에서 수행되는 유사한 시책과 사업을 관할기관과 부서의 벽을 넘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느냐 하는 “지역단위 통합관리시스템”(area-based integrated system)의 구축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미래발전의 약속과 다짐만 가지고 평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구의 질과 지역발전 성과로 충남도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밖으로는 존경받는 전문지식인 집단으로 위상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개인의 발전을 서로 북돋아주어 자기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행복하고 신나는 연구원을 만드는 데 다 함께 동참합시다.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마다 고루 행복과 건강, 그리고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7. 9